

# 서비스주의 국가사례 연구: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지혜

김 현 수\*

## 목 차

요약	3.2 태극 기반의 한국인 지혜
1. 서론	4. 건국사상과 대한민국 발전
2. 대한민국 국기와 건국사상	4.1 대한민국 건국과 운영 지혜
2.1 태극기와 서비스철학	4.2 서비스주의에 의한 국가 운영
2.2 대륙문명과 건국사상	4.3 태극사상과 대한민국 화쟁모델
2.3 해양문명과 건국사상	5. 토의 및 과제
3. 건국사상 및 한국인 지혜	References
3.1 대한민국 건국사상	Abstract

##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운영 지혜를 인류사회의 자산으로 구축하는 연구로서 서비스주의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건국 직후 참혹한 3년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하며 세계 유수의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사례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그 성공 요인은 건국 사상 및 그 운용의 탁월함에 있다는 기초 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거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국 활동 수행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원천 사상은 조선왕조 말기에 국기로 만들어졌던 태극기의 태극사상임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주체들은 태극 사상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건국사상으로 채택하였고,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태극사상 기반으로 운영되어 초고속 발전을 이루어 냈다. 태극사상은 인류공통진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대륙문명 국가에서 새로운 해양문명을 받아들여 건국된 대한민국이 건국을 준비한 과정, 건국의 과정, 건국후 국가를 운영한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륙문명의 강점과 해양문명의 강점을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한 건국주체들의 탁월한 지혜를 발굴하였고, 두 대륙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동태적 운용모델이 초고속 국가발전의 성공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사상적 배경과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한국인들이 단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극사상이 한국인들에게 공통된 기저사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큰 지혜가 발휘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문명의 장점을 끌어다 쓰는 능력을 발휘한 건국주체들의 리더십 모델이나, 또 긴장을 잃지 않도록 적정한 시점에 정부를 교체하여 항상 긴장감과 동태성을 유지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운용모델이 건국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긴장하며 발전을 구가한 지혜의 근원인 태극 사상은 인류의 지혜로 자산화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추가 연구들도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서비스철학, 건국사상, 대한민국, 태극모델

접수일(2022년 4월 19일), 수정일(1차:2022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3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 1. 서론

대한민국 건국 후의 초고속 발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의 근본 원인을 건국 사상의 탁월함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다. 태극기의 태극사상과 인류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을 반영한 건국과 운영이 었기에 초고속 성장 발전이 가능했다고 추정된다.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사상과 국가운영모델은 인류사회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지혜가 될 수 있다. 이 지혜를 자산화하여 인류사회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882년 조선왕조시대에 제작된 태극기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점에도 계속 사용된 것을 보면, 태극사상은 한국인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태극사상이 대립자들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선진 정치제도 정착과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을 통한 초고속 경제발전이 건국 후 수십년만에 동시에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태극 사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건국주체들이 태극사상을 활용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운영한 스토리를 분석한 후, 이를 인류사회의 지혜로 자산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태극기의 사상을 분석하고 인류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과의 부합성을 논의한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시점 기준으로 한국인의 사상적 지형을 분석한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으로 대별되는 세계 사상 지형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사상 지형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건국시점의 대한민국은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교차점에 있었고 볼 수 있으므로, 각 문명의 사상적 특징과 건국시점의 한국인 사상 지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사상과 핵심 지혜를 분석한다. 외형적 건국사상과 실제적 건국사상을 분석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등 건국주체들의 내면 사상을 반영한 실제적 건국사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된 건국 준비 과정에서 핵심 주체들이 발휘한 지혜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건국사상과 이 사상에 기반한 국가 운영 방법이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 발전을 견인하였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태극 모델에 의거하여 국가가 운영되므로, 대립자들이 항상 팽팽한 긴장속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이 가능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대립자 각각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항상 긴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이러한 과정이 최고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태극사상과 서비스주의가 궁극적인 최고 성과를 위한 공통 지혜임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제시된다. 태극 모델 구현과 변증법적 발전 사상 구현 역사가 현대 한국사였음을 제시한다. 각 국가 또는 개인들이 태극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지속발전원리임을 입증한다.

제5장에서는 토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2. 대한민국 국기와 건국사상

### 2.1 태극기와 서비스철학

대한민국 건국 사상은 국기인 태극기의 사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또 이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태극기의 사상과 서비스철학을 분석한다.

태극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시 역관 이용준의 도안으로 아래 그림 <Fig. 2-1>과 같이 처음 만들어져서 사용되었고, 이후 1882년 9월 박영

효가 ‘임오군란’으로 희생된 일본인들에 대한 사과사절단 ‘의 특명전권대사 및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개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때 함께 승선하고 있던 일본 주재 영국 영사 애스턴(Aston)과 사해를 두루 다닌 선장의 도움을 받아 태극이 가운데 있고, 8괘가 아닌 네 모서리에 4괘가 있는 국기가 만들어졌다(Ham, 2020).

이때 만들어진 조선의 태극기는, 이후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회오리 모양에서 아래 그림 <Fig. 2-2>와 같은 가지런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대한민국 태극기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1948년 새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사실상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보면 태극사상과 주역의 변화 사상은 한국인의 중심 사상에 매우 부합하며 이는 오랜기간 동안 체화된 한국인의 특성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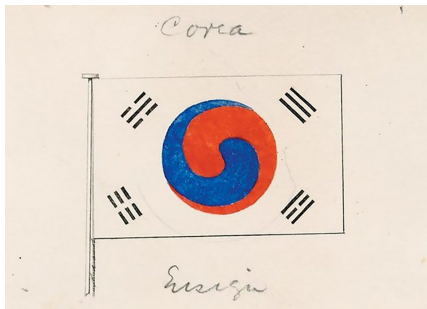


Fig. 2-1 The First Taeguk Flag  
(Flags of Maritime Nations(1882, USA))

박영효는 위 그림 <Fig. 2-1>과 같은 최초의 태극기의 도안에서 4괘의 좌우 위치를 바꾸고 가운데 태극의 홍색을 90도 회전시켜 위로 배치하여 확정하였고 1883년 3월 고종이 반포하였다. 즉 아래 그림 <Fig. 2-2>의 현재 태극기와 사실상 동일한 모양인데, 모서리 4괘는 동일하고, 가운데 태극 모양만 원래 이용준의 도안처럼 회오리모양 태극을 90도 회전시켜 디자인한 것이었다.



Fig. 2-2 Korean Flag

현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최초의 태극기에 비해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단순화되었다. 즉 청과 홍이 회오리 모양으로 서로 많이 섞여 있어 융합된 형태가 원래의 태극 모양인데, 지금은 대체로 분리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 대립자간의 융합 교류가 약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 토의시에 대한민국 발전 지혜 전수 관련하여 이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건괘(乾卦)는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리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a)

이 태극기의 사상은 인류 공통원리와 부합한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공통 원리는 인류 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공통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파니샤

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 철학인 변증법사상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다.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Kim, 2019a; 2019b; 2019c; 2019d). 이러한 공통 진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그림 <Fig. 2-3>과 같이 대립자들이 시공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태극모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철학적 구조가 지혜 분석 및 도출 모델의 기반이 된다(Kim, 2019a).



Fig. 2-3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도(道)가 된다.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태극모델이 현대 철학인 서비스철학의 구조다. 대립자 각각이 가치를 가지지만,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 대립과 균형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이다.

또한 공통진리의 핵심은 나선형 변증법이다. 흘러

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다. 즉 대립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모델이다. 서비스철학에서 세상의 운용모델 표현은 아래 그림 <Fig. 2-4>와 같이 나선형 발전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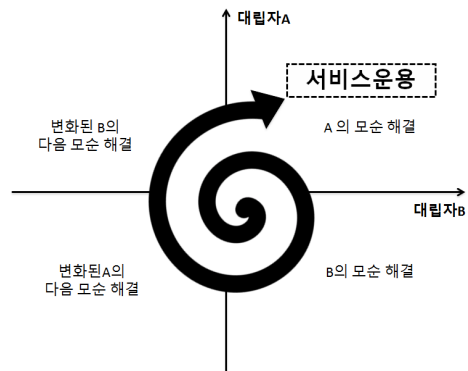


Fig. 2-4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이와 같은 서비스철학의 구조는 수천년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흘러가고 변해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서비스철학은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과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공통진리일 가능성이 높다(Kim, 2019b; 2019c; 2019d). 일부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류의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에 영향을 준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특징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한다.

## 2.2 대륙문명과 건국사상

대륙문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대륙문명사상이 한국인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전 시대

인 조선왕조를 지배한 유학의 영향이 가장 큰 상황 이었고 유학보다 오래전에 유입되어 토착화된 불교 나 도교사상의 영향도 매우 큰 상황이었고, 천도교 등의 한국고유사상도 사상적 지형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Kim, 2019c; 2019d; 2017)와 관련 문헌 을 통하여 건국시점 한국인의 대륙문명적 중심 사상은 아래와 같이 고찰될 수 있다. 공자시대의 초기 유가 사상은 정명론(正名論)과 인(仁) 중심 사상이었다. 정명은 각자가 이름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위해 위에서부터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문화가 동양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에서는 인을 강조하였는데, 자기 마음을 채는 잣대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강조하였다. 맹자의 표현대로 어진 사람은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없고 어진 신하는 임금 버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인은 효(孝)와 충(忠)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禮)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충과 효, 그리고 인과 예는 건국시점 한국인의 마음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생활윤리에 가까웠던 유학 사상은 후대에 주희(A.D.1130-1200)에 의해 인생과 우주 전체를 통합 설명하는 신유학인 성리학으로 발전되었다. 성리학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성리학에서는 가족과 국가 공동체가 중요하므로, 건국시점 한국인의 주된 사상은 개인보다는 가족과 민족 등의 공동체 중심 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국시점 한국인에게는 오랜기간 뿌리내린 불교사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불교 사상의 중심은 신라시대부터 오랜 전통이 있는 화엄사상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한국불교의 중심은 화엄이라며 불교 개혁을 한 바와 같이, 화엄사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불교사상의 중심축으로서 한국 사상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화엄사상은 법계연기(法界緣起)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홀로 있거나 일어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사상으로 서 '무진연기(無盡緣起)'로도 불린다. 화엄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고 항쟁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교설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전제왕권국가의 율령정치체제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구실을 담당하였다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22). 의상의 화엄사상, 원효의 일심/화쟁사상, 지눌 보우 등의 선불교 사상 등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한국인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가사상도 한국인 사상 지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사상 천도교는 천지인(天地人) 구조를 기반으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인내천)이라는 사람 강조 사상으로서 19세기 후반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크게 번성하였고,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건국시점 한국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요약하면 유학사상은 정명론을 중심으로 충과 효가 강조되는 수직적 문화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했고, 공동체 중심 문화가 한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불교사상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초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도가의 무위자연사상도 자기 한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실세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가에서 강조한 '인' 사상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생활 윤리 차원에서 한국인의 행동과 사고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륙문명 성격의 사상은 건국 당시 한국인들에게 매우 지배적인 사상이었으며, 이는 해양문

명 성격의 사상과 상이한 특징이 많았기 때문에 문명 전환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 2.3 해양문명과 건국사상

한국인들에게 해양문명이 소개되고 전파된 것은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사들의 내한 및 선교 활동으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Ham, 2020). 이들 선교사들이 서구식 병원을 세워 서양 의술을 전파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근대 지식을 전수하고, 또 교회를 세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해양문명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다. YMCA 등을 통해 개신교 교세가 확장되며 해양문명 사상이 한국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미국 유학을 한 소수의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양문명은 건국시점 한국인에게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의 지도층들에게는 상당히 주도적인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한국인에게 영향을 준 주된 해양문명은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었다. 특히 개신교의 칼뱅주의 사상은 기독교의 혁신과 함께 미국 등의 건국 사상으로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19세기 말부터 내한하여 전파한 중심사상이었다.

Ham(2020)은 그의 ‘한국사람만들기’ 저서에서 칼뱅주의 사상과 19세기말 선교사들이 한국에 전파한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칼뱅은 16세기 당시 대다수의 철학자, 신학자, 이론가들과 달리 전통사상을 거부하고, ‘성도(saint)’ 라는 새로운 정치적 인간형을 만들어냈다. 칼뱅주의 ‘성도’는 공적인 책임과 이념에 대한 헌신으로 무장한 채 규율을 내재화한 존재였으며 가족의 틀을 벗어나 자신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념만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성도 개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개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독립된 개

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혼도 두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민사적인 계약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도 해체되고, 모두 노동의 의무를 진다. 조선의 수직적 가족제도와 무노동 양반 사회에 익숙해있던 19세기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혁신적인 사상이었다. 칼뱅주의는 철저한 자기규율(self-discipline)을 요구한다.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출된 장로 등에 의해 자기규율 수준을 심사받으므로 개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중의 다른 신도들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였다. 막스베버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개신교 특유의 물질주의와 검약주의의 조합이 자본주의의 문화적 밑바탕이 된 이유가 ‘개혁교회의 제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개혁교회 내에서는 규율과 기강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 신도들이었고 공동체 전체의 의무였으며 신도 개개인의 윤리와 도덕은 쉼 없이 강조되었다. 칼뱅주의자들은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주의시스템은 ‘지극히 배타적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합 또는 결사체로 영겨있는 공동체’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칼뱅주의 윤리 도덕과 정치 사상이 19세기말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시점 한국인 사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Ham, 2020).

이와 같은 개혁교회 중심의 해양문명 사상은 전통적 대륙문명권 사상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사상이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은 그 출발부터 매우 상이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중국 대표 철학자 Pung(2017)의 동양(중국)철학과 서양철학에 대한 비교 분석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대비할 수 있다. 즉 대륙문명은 수직적이고, 해양문명은 수평적 문화가 강하며, 서양은 독립적 개인이 강조되어 왔고, 동양은 가족 등 공동체가 강조되었다. 대륙문명의 경우 토지에서 생

산물이 나오는 농업경제인데, 토지를 획득하려면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왕으로부터 하사받아야 하므로 충과 효 문화가 강조되고 따라서 수직적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차이는 아래 표 <Tab.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 2-1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동양/대륙문명	서양/해양문명
주로 내륙국	주로 해양국
농업경제 위주	상업경제 위주
수직사회 중심 (효, 충 강조)	수평사회 중심 (독립 개인 강조)
실물개념 강함	추상개념 강함
군주제 전통	민주정 전통

(Pung(2017) 참조 저자 구성)

뿌리에서부터 차이가 큰 두 문명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서 융합하고 경쟁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사상을 탄생시켰다. 건국주체들과 달리 대다수 한국인은 대륙문명권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건국의 과정과 건국사상의 전과 확립 과정은 이후 지난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태극사상에 의해 대한민국은 초고속 발전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아래에서 건국사상과 운영과정을 고찰한다.

### 3. 건국사상 및 한국인 지혜

#### 3.1 대한민국 건국사상

대한민국 건국사상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과 8월 15일 건국(정부수립) 기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정 국가이며, 주권자 국민들이 함께 국가

를 운영하는 공화정 국가라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사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수립 기념사에서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건국의 기초 요소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민권과 개인 자유의 보호'와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 '이라는 2 항목으로 부여하며 자유를 크게 강조하였다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b).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사상은 해양문명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사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공화국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건국 당시 한국인의 사상적 지형은 대륙문명에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외형적인 건국사상과 내면적인 한국인 중심 사상과는 괴리가 큰 상황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민주공화정은 매우 생소한 시스템이었다. 주체적 개인에 대한 개념도 생소하였고, 자유와 자유인에 대한 개념도 생소하였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서구에서 오랜 기간 투쟁하며 쟁취된 어려운 제도로서, 국민들의 경제 및 지성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상만을 건국사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건국사상을 아래에서 분석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사상 정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한국인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1875년 3월생으로 소년기와 청년기는 유학 교육을 받으며 대륙문명에서 성장하였고, 1895년 4월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해양문명을 학습하고 경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양문명 사상에 기반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Rhee, 2018). 1904년부터 1945년 귀국시까지 해양문명국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박사학

위 취득후에 잠시 귀국하여 생활한 2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40년을 해양문명권에서 생활한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거치며 해양문명의 지성을 습득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점은 그의 나이 73세로서 외형의 해양문명 사상과 내면의 대륙문명 사상이 원숙하게 조화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내 프란체스카의 6.25 난중일기 등 내면의 기록을 보면 대륙문명(유교문화 유학사상 공동체문화)과 해양문명(개인 자유 민주주의 공화사상)이 그의 내면과 일상 생활에 동시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liver, 2008; Rhee, 2010; Lew, 2019). 건국 과정과 건국 직후에 주요 역할을 수행한 김규식, 장면, 윤보선, 장택상, 조병옥, 윤치영, 임영신, 이기붕 등도 경험 정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대륙문명과 해양문명 동시 경험자들이었기에 두 문명의 사상이 내면에 조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건국 사상은 건국주체들의 실제적인 사상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이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조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Tab.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문명은 상호 대립과 보완 관계의 문명이므로 태극적 조화 모델을 목표 사상으로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국주체들이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을 함께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당시 한국인 대다수가 대륙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국문명은 수직적 대륙문명과 수평적 해양문명의 융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주체들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태극기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채택하고 사용한 것을 보면 태극 사상에 의해 두 문명의 조화 공존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국 철학도 외형적으로는 자유와 개인주의 사상 중심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래 그림 <Fig. 3-2>과 같이 대다수 한국인들이 익숙해있던

평등 및 공동체 중심 사상과 새로운 자유 개인 중심 사상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주체들이 대륙문명의 바탕위에서 해양문명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태극사상이 한국인 모두에게 오래도록 뿌리내려 내면의 중심사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Fig. 3-1 The Thought of Korea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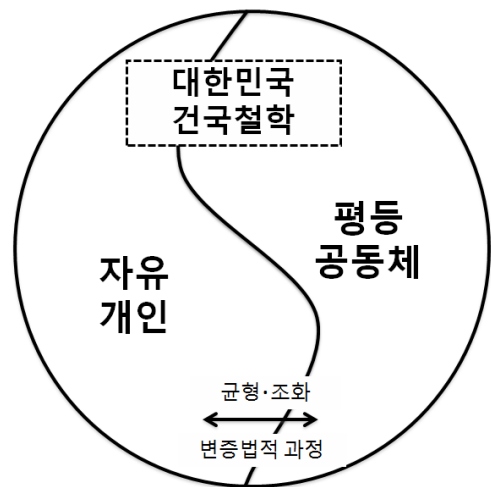


Fig. 3-2 The Philosophy of Korea Building



### 3.2 태극 기반의 한국인 지혜

태극 모델이 건국사상 모델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국 준비기간 중에도 태극 모델이 한국인의 지혜로 깊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해방 시점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까지 3년간 진행된 과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19년 3.1운동 시점부터 1948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시점에서 과거 조선왕조(대한제국)로 복귀하려는 북벽주의 운동이 거의 없었고, 3.1운동 직후 한성 등 국내 외 여러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들 임시정부들이 통합되어 상해임시정부로 발족할 때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이견 없이 결정한 것은 조선왕조(대한제국)로의 복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므로, 대한민국 건국 운동은 실질적으로는 1919년 3.1운동 시작을 시점으로 하여 1948년 8월 15일에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시점의 한국인은 다양한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Ham(2020)은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5가지 유형의 한국인이 모두 대한민국 건국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5가지 유형은 위정척사파, 개화파, 기독교파, 공산주의파, 민족주의파 등인데, 서로 생각이 다른 여러 유형의 한국인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협력했으나, 이는 건국주체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반목하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함께 만나서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큰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기인 태극기의 사상이 공통적 기반 사상이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자유민주주의) 계열,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 아나키즘(무정부주의) 계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면서 전개되었다. 독립

운동은 건국운동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임시정부 후반기에는 좌우합작 정부로 발전하였고, 국내에서도 해방 직전 좌우합작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노선이나 지향 이념 차원에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며 건국 활동을 전개해갔다고 할 수 있다(Park, 2014).

앞서 제시한 Ham(2020)의 5개 한국인 유형이나, Park(2014)의 다양한 이념과 노선의 독립운동사 결론은 모두 1919년 건국운동 개시 시점부터 1945년 해방시까지의 대한민국 건국활동은 건국 주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협력의 역사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다양한 사상적 뿌리를 가진 한국인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장기간 진행한 태극 모델 지혜의 발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 3-3>과 같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건국을 주도한 핵심 그룹들은 좌파 사상과 우파 사상을 각기 자신들의 이념으로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필요시 서로 협력한 과정으로 도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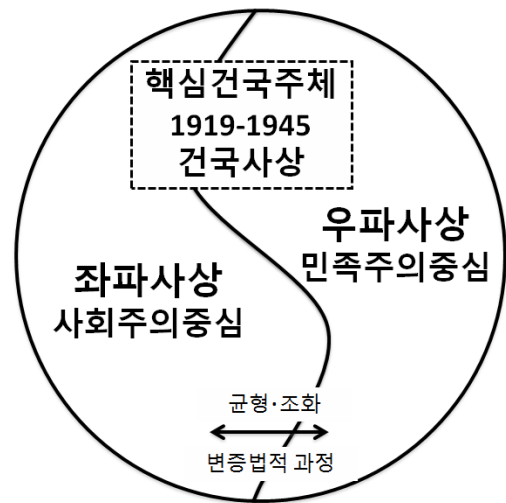


Fig. 3-3 Founding Thoughts of Key Leaders in Korea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태극사상이 한국인 모두에게 오래도록 뿌리내려서 내면의 중심사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다른 사상 그룹들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며 독립운동과 건국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실제적인 대한민국 건국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혼란시기였다. 미군정의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활동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어 수많은 정당과 다양한 이념의 정치활동이 난무하는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1945년 해방 시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기독교파), 공산주의(사회주의)파, 민족주의(민중주의)파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점까지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하였다. 사상적 대립은 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양자 간의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미군정청 여론국의 여론조사 결과, 당시 77% 이상 대다수 한국인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건국 주체들은 아래 그림 <Fig. 3-4>와 같이 우파사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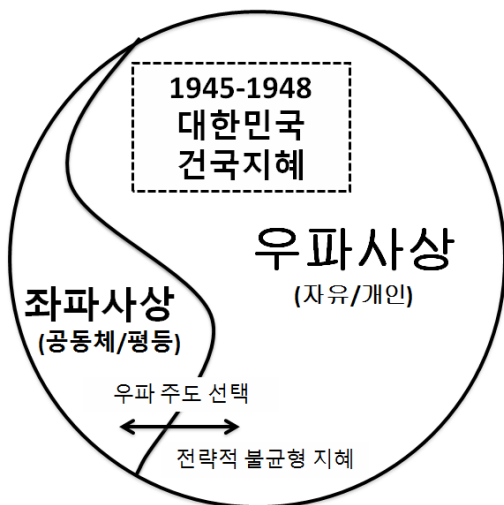


Fig. 3-4 Strategy of Key Leaders in Korea

핵심 건국 주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동유럽 좌우합작 국가들의 급속한 좌경화를 신속히 목도하고 대한민국 발전 목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우파 사상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전략적 불균형의 지혜를 발휘하였고, 이 지혜는 한국인의 저변 사상인 태극 모델에 기반을 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우파 사상이 안정된 1985년경이 되어서야 좌파사상의 전면적 활성화를 허용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는 결과를 보이었는데, 이는 태극 사상 구현 지혜라고 볼 수 있다.

#### 4. 건국사상과 대한민국 발전

본 장에서는 건국사상에 기반한 국가운영 방법이 대한민국의 초고속 발전을 견인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태극 모델에 의거하여 국가가 운영되므로, 대립자들이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대립자 각각이 자신들의 생존 및 비전 추구를 위해 항상 긴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이러한 과정이 최고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태극사상과 서비스주의가 궁극적인 최고 성과를 위한 공통 지혜임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제시된다. 각 국가 또는 개인들이 태극 기반 변증법적 발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원리임을 제시한다.

##### 4.1 대한민국 건국과 운영 지혜

대한민국 건국시점의 사상지형은 대다수 한국인이 아래 그림 <Fig. 4-1>와 같이 대륙문명권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었다. 국가경영 주체인 개인

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해양문명식 인식은 취약한 반면, 민족이나 가족 등 공동체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이었다.



Fig. 4-1 Thought Topography at the time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인에게 내재된 태극 사상에 의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 주체들은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사상적 건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불균형을 선택하였다. 즉 해양문명의 개인 중심 국가, 자유 중심 국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실제적으로는 두 문명이 최적 조화된 국가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핵심 건국 주체들은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해양문명 사상을 크게 강조하며 국가를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주체들은 해양문명적 국가를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선택, 시장경제 선택, 국민 자유권과 국민 재산권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Oliver, 2008). 건국 목표모델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6.25 전쟁 중에도 전국민 직접선거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등 해양문명식 국가체제를 정착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해외 연수와 유학 강화 등의 해양문명 문화 조기 정착 전략도 선택하였다. 또한 수평사회를 구현하고, 대륙문명적 문존무비 전통을 혁파하였다. 기독교 사상 전파를 강화하고, 불교를 개혁하고,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였다(Lew, 2013; 2019).



Fig. 4-2 Strategic Wisdom of Founding Fathers of the Republic of Korea

건국 당시 한국인 대중의 사상적 지형과 매우 상이한 사상을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했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갈등 유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불균형 선택의 반작용으로서 1960년 4.19 및 제2공화국의 전환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민족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실상 대륙문명 중심 국가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이 운영되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운영은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최적 조화 국가 건국이라는 건국 사상에 따라 해양문명을 강화하려는 국가운영과 대륙문명의 중심성을 회복하거나 활용하는 국가운영이 번갈아 나타났다. 상당한 시간

이 경과된 이후에야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해양문명 사상을 대륙문명과 조화시키면서 태극 모델을 정착시켜서 건국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건국 주체들의 전략적 불균형 선택 지혜를 통하여 비로소 대한민국 태극기의 사상인 태극 모델 건국사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4.2 서비스주의에 의한 국가운영

제2장에서의 분석에 따라 한국인의 오랜 뿌리사상인 태극기의 태극사상이 저변에 내재된 대한민국 건국과 운영 지혜는 인류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서비스주의적 운영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이 대륙문명과 해양문명,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평등사상과 자유사상이라는 두 대립자가 나선형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이 대한민국 운영모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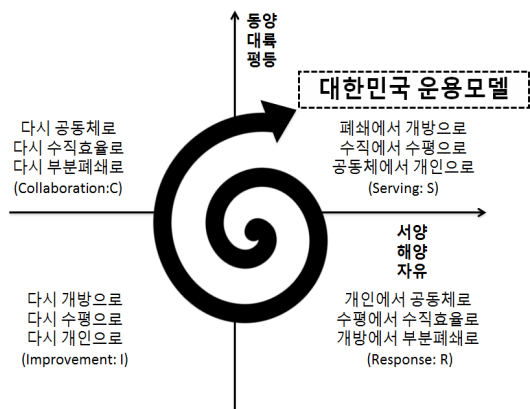


Fig. 4-3 The Operation Model of Korea

각 대립자가 자신의 비전과 철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경쟁 대립자에 의해 지적되고 발전되는 자신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개선해가면서 발전하는 모델이다. 상대 대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신의 비전을 구현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대 대립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도 하며,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의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나선형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시점에서는 앞서 제3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대륙문명 동양사상 좌파사상이 우세하였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건국주체들은 우파사상과 해양문명 서양사상 강조라는 전략적 불균형을 선택했다.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공화국으로의 대한민국 건국,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권과 자유권 재산권 부여, 국민 직접 선거에 의한 행정 대리인 공직자 선출, 자유인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해양문명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 및 유학 장려, 외국과의 다양한 개방적 교류 강화(Kim, 2013; Lew, 2013; 2019) 등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전략적 불균형 선택이었다. 대다수 성인이 문맹인 상황이어서(해방시점 문맹율 78%),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직접 선거를 계속 실시하며 해양문명 공화국의 주인됨을 조기에 체험하도록 하였다. 즉 위 그림의 1/4분면 상황이 제1공화국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륙문명 중심 국가에서 해양문명 중심국가로 빠르게 전환시키려는 정치를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2/4분면에 가까이 온 상황이 되었을 때 1960년 제2공화국이라는 전환기가 있었다. 짧은 제2공화국 시기를 거쳐, 곧이어 2/4분면의 대륙문명 중심 국가 운영 체제인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이 운영되었다. 2/4분면 시기를 상당기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은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1/4분면 시기에 집중한 해양문명 국가로의 전환 노력이 기반이 되어 2/4분면 시기에 큰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즉 1/4분면 시기에 배출된 국내외에서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과 축적된 기술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해외 연수와 교류 강화를 통해 구축된 개방형 수출 경제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륙문명적인 수직적, 유형적, 공동체적 문화를 발휘하여 가족과 국가(민족)의 가난 탈출 프로젝트를 일치단결하여 성공시켰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운영은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최적 조화된 국가의 건국이라는 건국 사상에 따라 해양문명을 강화하려는 국가운영과 대륙문명의 중심성을 회복하거나 활용하는 국가운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체로 10년 주기로 대륙문명기반에서 해양문명기반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두 대립자 그룹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두 대립자가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서로의 발전을 압박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주의에 의한 국가운영이 국가를 가장 크게 융성시키는 원리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태극기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자신과 대립자와의 경쟁과 협력에 의한 변증법적 발전 원리를 인지하고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하여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립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동태성은 초고속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정주기를 번갈아가며 대립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역사라든지, 그 정권교체 선거는 대체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든지(1963년, 1997년, 2022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팽팽한 것 등은 대한민국의 치열한 동태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운영과정은 동태성으로 인한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도 긴장 속에서 서로 함께 발전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태극기의 사상과 인류공통원리에 의해 ‘서비스주의 운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동태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초고속 발전이 가능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주의와 태극사상은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 볼 수 있다.

### 4.3 태극사상과 대한민국 화쟁모델

지난 70여년간의 대한민국 운영 사례는 동양과 서양의 융합,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킨 인류사회의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성공 요인은 한국인에 내재된 뿌리 깊은 태극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건국주체들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전략적 불균형 선택 지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유럽의 여러국가들에서 좌우 합작이 실패했는데 그 원인도 태극사상의 부재와 전략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한쪽의 힘이 매우 큰 상황에서의 합작 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 불균형 선택과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순 합작을 즉시 추진하였기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을 교육하고, 제도를 보완해가고, 자유인 양성을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등의 오랜 시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문명 전환이나 융합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운영은 항시 존재하는 두 대립자에 시간과 공간, 인간(국민/국가경영자)이라는 세 개의 축이 더해진 5차원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운영 방법에 확정적인 해법이 있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성공적 운영모델이 향후의 대한민국 운영에도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건국사상을 두 대립자가 공유하는 정도가 클수록 미래 대한민국 운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대립자 간의 경쟁과 협동이 선순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Fig. 4-4>와 같이 두 대립자가 건국사상을 공유하는 정도가 매우 클 때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은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0여 년 간의 대한민국 역사는 각 대립자가 태극모델 건

국사상을 크게 공유하고 있었기에 치열하게 함께 발전해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고속 발전과 국가 동태성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화쟁사상 등 태극 기반 사상이 한국인의 뿌리사상이 되어 있었기에(Kim, 2019d; 2017), 문명전환기에 빛을 발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래 그림 <Fig. 4-4>는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초고속 발전을 설명해주는 모델이 되며, 향후에도 두 대립자가 공유하는 사상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면, 상당기간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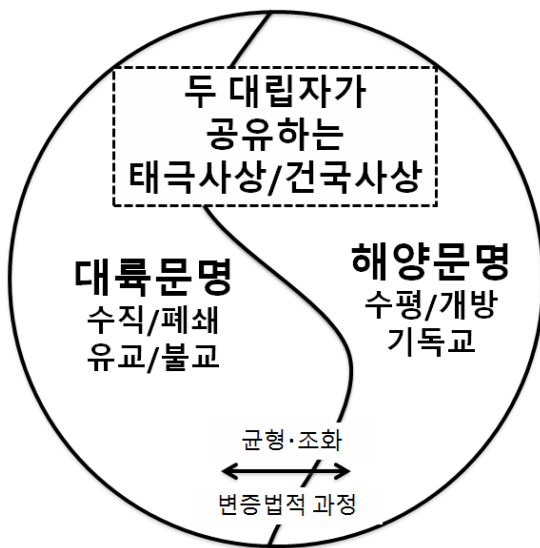


Fig. 4-4 The Operation Model of Korea

##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지혜를 자산화하는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건국 준비기간과 건국 후 운영과정을 분석하여 건국사상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성공요인이었음을 제시하였다. 태

극사상과 서비스철학과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 원리가 대한민국 발전원리와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사상과 발전원리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지혜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지혜를 자산화하여 인류사회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태극 사상을 잘 활용하여 국가 발전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10년 주기의 좌우 정권교체보다 짧은 5년만의 정권 교체가 나타나는 것도 불안정성 증대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 증대의 원인을 태극기의 변화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최초 태극기의 회오리 모양 태극을 가지런한 현재 태극 모양으로 정리하면서 태극의 의미를 후속 세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즉 대립자들이 회오리 모양으로 서로 많이 융합되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최대한 활발하게 교류하는 형태가 원래의 태극 모양인데, 지금의 태극은 덜 융합되고 덜 교류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고유사상은 3태극 사상이다. 천지인 3태극이 기본으로서 사람이 하늘과 땅과 함께 중요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Kim, 2017). 이 고유사상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면 대한민국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 두 대립자의 공통 사상 기반이 크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화쟁모델 구현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70여 년간의 대한민국 건국 및 발전 모델과 대한민국 운영 방식이 인류 차원의 지혜 자산이 되어 인류사회를 오래도록 번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2022), Hwaeom

- Though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2), 화엄사상(華嚴思想))
2. Ham, Jaebong (2020), *Making Korean I, II, III*, H Press (함재봉(2020), 한국사람 만들기 I, II, III, H프레스)
  3.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4.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5.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6.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7.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105-118)
  8. Kim, Yongsam(2013), *Syngman Rhee and Entrepreneur Era, Book and People* (김용삼(2013), 이승만과 기업가시대, 북앤피플)
  9. Lew, Young Ick (2019), *Life and Founding Vis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Chung Media (유영익(2019),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비전, 청미디어)
  10. Lew, Young Ick (2013),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Ijogak (유영익(2013),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11.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a), National Flag (행정안전부(2022a), 태극기 설명)
  12.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b), PRESIDENTIAL ARCHIVES, 1948.8.15 Presidential Address (행정안전부(2022b), 대통령 기록관, 1948년 정부수립 기념연설문)
  13. Oliver, Robert T. (2008), Ilyoung Park T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1942-1960) - A Personal Narrative*, Dongseomunhwasa (로버트 올리버(2008), 박일영 옮김,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동서문화사)
  14. Park, Chan Seung (2014), *A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Yuksabipyungsa (박찬승 (2014), 한국독립운동사. 역사비평사)
  15. Pung, W. R.(2017), Park, S. K. Tr., *A History of China Philosophy*, Kkachi. (풍우란(2017),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16. Rhee, Francesca Donner (2010), *Francesca and 6.25 Diary*, Kiparang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 프란체스카의 6.25 난중일기, 기파랑)
  17. Rhee, Syngman(2018), Park, K. B. Ed., *Independence Spirit*, Bibong Publisher, (이승만(2018), 박기봉 교정, 독립정신, 비봉출판사)



**Hyunsoo Kim (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 A Case Study on Servicism: Korea's Founding and Development Wisdom

Hyunsoo Kim<sup>1)</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servicism basis as a study to build the management wisdom of Korea as an asset of human society. The case of the founding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eveloped into one of the world's leading powers with unprecedented rapid growth despite the devastating three-year war immediately after its founding, is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This study conducted a macroscopic analysi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founding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idea inherent in Koreans was the Taegeuk idea of the National Flag. The foun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dopted the Taegeuk ideology as the founding ideology. It can be said that the Taegeuk ideology has led to greater success because it is based on the service philosophy, which is the common truth of mankind.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founded by accepting a new maritime civilization from a country with a long continental civilization, the process of national foundation, and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ountry after its founding were analyzed as a whole. In particular, it discovered the excellent wisdom of the founders who appropriately utilized the strengths of continental and maritime civilizations in necessary situations, and confirmed that the dynamic operating model of development through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opponents was a success factor for high-speed national development. It requires great wisdom for Koreans with diverse ideological backgrounds and unique personalities to unite to establish and run a nation. This is because fierc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ust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he great wisdom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ble to be demonstrated because the Taegeuk ideology was acting as a common basic ideology for Koreans. Taegeuk ideology, the source of wisdom that Korea has developed under constant tension, can be capitalized as human wisdom, and additional case studies are needed.

*Keywords: Servicism, Service Philosophy, Founding Thought, Korea, Taegeuk Model*

---

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